

미완료 역설의 의미분석에 관한 연구

최 성 훈
(송원전문대학)

Choi, Sunghoon. 1997. A Semantic Analysis on the Imperfective Paradox of the Telic Progressives in English. *Linguistics*, 5-1, 229-24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emantics of the telic progressives which give rise to the imperfective paradox and to suggest the formulations of the semantics of the telic progressives.

We review previous analyses of the telic progressives and discuss their problems. The central trick in Bennett's(1981) treatment of the imperfective paradox is to express telicity as a property of intervals of time, rather than as a property of events or of the predicates true of events. However the problem of Bennett's analysis can be found in the extension of predicates. Among the time based approaches, Dowty(1977,1979) formulated the truth condition for progressives in an attempt for atelic and telic progressives by invoking the notion of inertia world. Dowty's analysis, however, encounters a problem in accounting for sentences having two events, where one event indicated by the other event introduced by adverbial phrases. Kearns(1991) accounts for the telic progressives in terms of double memberships. Kearns' analysis has much difficulty in generalization of the progressive semantics.

We propose a truth condition for the telic progressives by using the notions of 'highly expected to be true' and 'involved in the event'. We believe the notions of 'highly expected to be true' and 'involved in the event' can be unified into one frame. (Songwon Junior College)

1. 머리말

영어의 진행형이 갖는 특징적 의미는 진행형이 비진행형 단순시제문의 의미를 함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 (1) a. Max was running towards the station.
b. Max ran towards the station.
- (2) a. Max was running to the station.
b. Max ran to the station.

- (5) a. (1a) \models (1b)
 b. (2a) $\not\models$ (2b)

이와 같이 진행형이 대응되는 비진행 단순시제문을 함의하지 못하는 현상을 Dowty(1977:45)는 진행형의 미완료 역설(Imperfective Paradox)이라고 부른다.

진행형은 어떤 행위가 일정한 시구간 동안 진행된다²는 의미에서 그에 해당되는 비진행문(nonprogressive sentence)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의된 진행형의 진리조건은 (6)과 같다(Bennett & Partee, 1978:13).

- (6) (PROG α) is true at t iff there is an interval I such that t is a proper subset of I , t is not a final subinterval of I , and α is true at I .

(6)의 진리조건은 (3)과 같은 비종결상 술어에서는 별 문제없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4)와 같은 종결상 술어에서는 (6)의 진리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Mary was drawing a circle*의 진행형이 참인데도 *Mary drew a circle*의 비진행 단순시제문은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진행형에서 나타나는 미완료 역설에 대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미완료 역설의 문제점

진행형의 미완료 역설의 기술에 관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형식문법에 기초한 연구 가운데 Bennett(1981), Dowty(1979), Vlach(1981),

2. 진행형을 시간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단순시제는 사건시(event time)가 하나의 시점을 차지하는데 반해, 진행형의 사건시는 시간범위가 일정한 시간의 폭(time span)을 갖는 특징이 있다. 바꿔 말하면 시간을 선형적인 점의 집합으로 간주할 때 진행형의 사건시는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로 확대되는 시구간(interval of time)을 차지한다. 가령 *The dog is running*의 경우 개가 뛰는 것이 참인 순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다른 시구간에서도 참일 것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The dog is running*이 t 에서 참이면 그 문장이 역시 참인 t 앞과 t 뒤의 어떤 순간들이 있어야 한다. 형식의미론에 입각한 진행형의 진리조건은 이와 같은 시구간과 관련해서 명제의 참·거짓으로서 평가된다.

Parsons(1990), Higginbotham(1990), Kearns(1991) 등을 들 수 있으나, 여기서는 Bennett(1981)와 Dowty(1979)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1 폐구간과 개구간

미완료 역설을 다루기 위해 Bennett(1981:13)는 종결상을 사건이나 사건에 적용되는 슬어의 속성으로 보지 않고 시구간의 속성으로 본다. 우선 그는 시간을 빈틈이 없는 조밀한(dense) 개념으로 보고 이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의 집합으로 표시한다. 이에 따르면 두 개의 시점이 주어질 때 그 사이에는 또 다른 시점이 존재한다 Bennett에 의하면 비종결상인 행위동사는 시간적 경계점(endpoint)이 없는 개구간(an open interval)으로 나타내고 Vendler(1967)의 완수동사나 달성동사에 해당하는 종결상의 수행동사(performance verbs)는 두 개의 시간적 경계점을 갖는 폐구간(a closed interval)으로 나타낸다.

Bennett의 두 가지 시구간 정의를 형식화하면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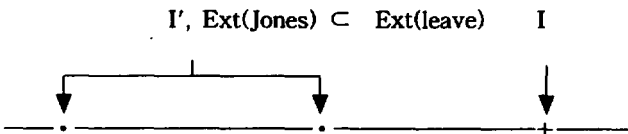
$$(7) \text{ a closed interval } [t_1, t_2] = \{ t : t_1 \leq t \leq t_2 \}$$

$$\text{ an open interval } [t_1, t_2] = \{ t : t_1 < t < t_2 \}$$

폐구간에서는 t_1, t_2 가 경계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구간에서는 이들이 경계점이 될 수 없다. (7)에 따르면 수행동사 문장 Jones has left의 진리조건은 다음 (8)과 같다(Bennett, 1981:14). 즉 특정한 시점 I 보다 앞선 폐구간 I'에서 Jones가 leave의 외연(집합)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완료형 문장은 참이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9)와 같다.

- (8) "Jones has left" is true at interval of time I if and only if I is a moment of time, and there exists an interval of time I' (possibly a moment) such that I' is a closed interval, $I' < I$, and "Jones" is in the extension of "leave" at I'.

(9) 수행동사의 완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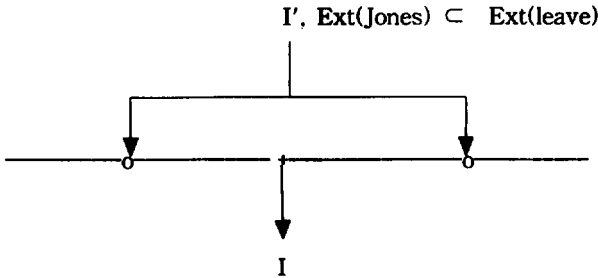
(9)의 그림에서 I' 는 폐구간을 의미하는 시구간을 나타내며 I 는 I' 보다 앞선 시점을 나타낸다.

한편 Bennett(1981:15)는 진행형 Jones is leaving의 진리조건을 개구간의 개념을 이용하여 (10)과 같이 분석한다. 즉 시점 I 를 포함하고 있는 개구간 I' 에서 Jones가 leave의 외연(집합)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진행형 문장은 참이 된다.

(10) "Jones is leaving" is true at interval of time I if and only if I is a moment of time, and there exists an interval of time I' such that I' is an open interval, I is included in I' , and "Jones" is in the extension of "leave" at I' .

(10)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11)과 같다.

(11) 수행동사의 진행형



(10)과 (11)에서 Jones가 leave의 외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구간이 경계점이 없는 개구간이기 때문에 leave라는 행위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Jones has left 라는 완료구문을 함의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Bennett의 분석에 대해 Parsons(1990)는 이 구별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직관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구간을 종결상 동사이나 아니면 비종결상 동사이나 등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개구간 혹은 폐구간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Parsons의 견해에 따르면 Bennett는 종결상의 사건은 닫힌 시구간에서 일어나고 비종결상의 사건은 열린 시구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는 막연한 전제일 뿐 성공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려운 구별이라는 것이다.

Bennett의 두 가지 시구간의 구별이 직관에 맞지 않다는 것은 다음 (12)

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 (12) a. 영희가 만화를 그린다.
b. 철수가 종을 친다.

(12)는 만화를 잘 그리는 영희에게 1분내에 간단한 만화를 그리게 하고 정확히 1분 후에 철수가 시간이 다 되었다는 종을 치는 상황이다. 만일 시점 t 에서 시작해서 1분 후인 시점 t' 에서 종이 울리고 동시에 만화를 그리는 일이 끝났다면, 이 시점이 정확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만화를 그리는 경우는 폐구간으로 인식되고 종을 치는 경우는 개구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Bennett의 분석은 술어의 외연과 관련하여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즉 (10)의 진행형의 진리조건을 자세히 관찰하면 어느 한 시점에서 Jones의 외연이 leave의 외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 (13)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시점에서 Jones leaves가 참이라는 뜻이 된다.

(13) "Jones leaves" is true at t iff $\text{Ext}(\text{Jones}) \subset \text{Ext}(\text{leave})$ at t .

(13)에 근거하여 (14)의 진리조건과 (15)의 함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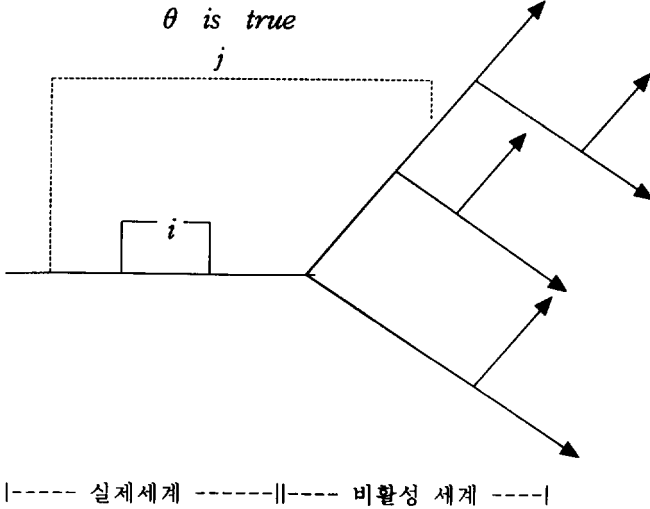
- (14) "Jones has left" is true at t iff "Jones leaves" is true at t' such that $t' < t$.
(15) "Jones is leaving" \supset "Jones leaves" at some time point t'
"Jones has left" at some time point t' such that $t < t'$.

(15)에 따르면 결국 Bennett의 분석에서는 종결상 동사의 진행형이 완료 의미를 함의하게 되어, 종결상 동사의 진행형은 완료상을 함의하지 않는다는 미완료 역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2.2 비활성세계 및 가상세계

진행형의 분석을 위해 Dowty(1977, 1979)는 선형적(linear) 시간구조 대신에 일종의 가능세계라고 할 수 있는 분기적인(branching) 비활성 세계(inertia world)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그는 어느 한 시점에 대해서 단 하나의 미래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16)과 같이 여러 개의 가능한 미래, 즉 비활성 세계가 있다고 본다.

(16)



Dowty는 또 진행형의 의미분석을 위해 PROG라는 연산자를 도입했는데 [PROG ϕ]가 참이 되려면 그 시간의 비활성 세계에 대해서, 그 기본 시간을 포함하면서 이 시구간에서 ϕ 가 참인 시구간이 비활성 세계로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이를 형식화하면 (17)과 같다.

(17) Dowty(1979)의 진행형 연산자 PROG의 진리조건

[PROG ϕ] is true in M at (i, w) iff there is an interval j such that $j \supset i$ (j includes i) and i is not a final subinterval for j, and there is a world w' for which ϕ is true at (j, w') and w is exactly like w' at all times preceding and including i.

여기에서 w는 평가 시구간 i를 포함하고 있는 실제 활성세계이며, w'은 평가 시구간 i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구간을 넘어서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비활성 가능세계이다.

Dowty의 비활성세계에서는 주어진 한 사건이 어느 시점까지는 실제세계에서와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 시점 이후 사건은 실제세계에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한 비활성 세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이나 비정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사건은 자연스런 과정(natural course)으로 진행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8) a. Mary was drawing a circle.
 b. Mary drew a circle.

(18a)가 실제세계의 시구간 i 에서 참이 되기 위해서는 (18b)가 i 를 포함한 시구간 j 에서 참이 되어야 한다. 이때 i 에서는 (18b)가 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i 에서 (18a)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간보다 더 긴 시구간 j 를 걸치는 동안에 (18b)가 참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18a)에서 Mary가 원을 그리는 행위가 어느 특정 기간에 방해로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비활성 세계에서 Mary의 행위는 계속 진행되어 그 결과로 원이 생기게 된다. 즉 비활성 세계에서 예문 (18b)는 참이 된다.

Dowty의 이론에서 연산자 PROG는 진행중인 사건(an event in progress)과 그에 상응하는 완성된 사건(a corresponding event)간의 관계를 나타내준다. 이에 따라 실제세계에서 사건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진행형은 참으로 간주한다. 즉 Dowty는 진행형이 반드시 실제적일 필요가 없는 가능한 사건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Dowty의 이론이 갖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비활성 세계를 정확히 규정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종결상 술어의 진행중인 사건이 자연스런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아서 실제 세계가 비활성 세계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9) a. Jones was crossing the street, when the truck hit her.
 b. Jones was writing a book when he died.

비활성세계는 사건이 방해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세계이다. 그러나 만약 (19a)에서 Jones가 길을 건너다 트럭이 치었다면 길을 건너는 동작은 중단된 셈인데 이는 트럭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기 때문이다. (19b)의 경우 Jones의 죽음으로 그가 책을 쓰는 동작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Dowty의 규칙에 의하면 (19)의 각 예문은 거짓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Parsons(1990)는 Dowty의 이론이 실제세계가 항상 비활성세계로부터 제외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많은 경우 사건은 진행되다가 실제로 완료되며 이 경우 실제세계가 비활성세계가 될 것이다. 만일 이때 우연히 장차 완료되지 않을 다른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 완료되는 미래의 비활성세계에서 미완료 상태에 있게 된다. Dowty의 미완료 역설의 분석은 비활성 세계에서 모든 종결상 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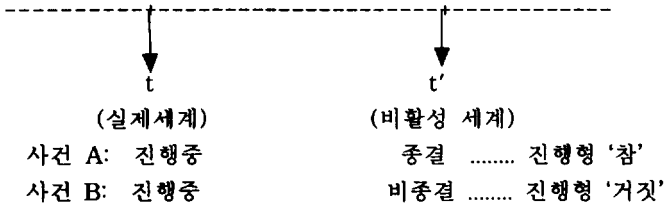
의 진행형이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19)의 경우 비활성 세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결국 진행형이 참이 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 (20a)와 (20b)가 (21)의 시점 t 에서 모두 참일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비활성 시점 t' 에서 Mary의 편지 쓰기는 끝났지만 Jones는 사과 먹는 것을 중도에 포기했다면 (20b)는 Dowty의 정의에 따라 참이 될 수 없다.

(20) a. Mary is writing a letter.

b. Jones is eating an apple.

(21)



따라서 Parsons는 실세계는 비활성 세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Dowty에 대한 Parsons의 이러한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가능세계의 일종인 비활성 세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 기술하려는 사건에 따라 상대화되어야 하며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21)에서 사건 A에 대한 비활성 세계가 꼭 사건 B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사건 B가 비록 어느 시점에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비활성 세계에서는 종료될 수 있는 일이다. (21)과 같이 사건 B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해 버리는 것은 오히려 비활성 세계를 지나치게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비활성 세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Kripke(1980:44)의 가능세계에 대한 견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가능세계란 특정한 문제 영역에 한정된 일종의 소형세계(miniworld)라고 할 수 있다. 즉 가능세계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상황의 조건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만일 (20a)가 시점 t 에서 참이라면 Mary가 편지 쓰기를 마치는 비활성 세계가 있게 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사건의 종료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 비활성세계는 Mary의 편지 쓰기라는 사건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사건의 비활성 세계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활성 세계를 사건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가능세계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기술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에 국한시켜 상대화해야 할 것이다.

비활성세계의 개념에 대한 다른 문제점을 (22)와 같은 예문에서도 볼 수 있다.

- (22) a. 홍수환이⁴가 알리를 치고 있다.
 b. 그 늙은 작곡가는 교향곡을 쓰고 있다.
 c. 방실이⁴가 얇은 얼음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22)의 예를 통해 비활성 세계의 자연스런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쉽게 포착할 수 있다. (22a)가 무하메드 알리의 전성기 때 이야기라면 우리는 홍수환이 곧 K.O. 당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건의 자연스런 과정이다. (22b)에서 이 늙은 작곡가가 병이 들어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다면 그는 그 교향곡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사건의 자연스런 과정이다. 또 (22c)에서 비록 방실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녀의 체중으로 보아 얼음이 깨져서 노래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대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진전이 비록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들을 비활성 세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에서 말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실제세계의 과정을 말하며 비활성 가능세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행형 문장의 비활성 세계를 해당 단순시제 문장이 참인 세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Kearns(1991)는 다음 (23)과 같이 Dowty의 진행형 진리조건을 수정하였다.

- (23) (PROG ϕ) is true at $\langle I, w \rangle$ iff for some interval I' such that I is properly included in I' , there is a possible world w' such that w and w' are identical up to and including I , and ϕ is true at $\langle I', w' \rangle$.

(23)은 Dowty의 분석을 수정한 것으로 Kearns(1991)는 이를 가상세계분석(basic counterfactual analysis)라고 부른다. 즉 Kearns는 Dowty의 비활성세계의 개념을 현실세계에서 참이면 가능세계에서도 참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24)와 같은 Higginbotham(1990)의 Dowty에 대한 비판은 (23)의 Kearns의 제안에는 그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24) Dowty's perspective is that the progressive draws its truth conditions from the truth conditions of certain counterfactuals: Mary was indeed crossing the street when she was hit by a vehicle because, had it not been for the vehicle, she would have crossed the street.

시제논리에서 진리조건은 특정한 시점에서의 무시제 명제의 진리조건에 의존해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종결상 동사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시구간의 개념이다. 즉 이에 따르면 종결상 동사문장은 특정한 시구간에서 참인데 해당사건은 이 시구간의 첫 시점에서 시작해서 그 시구간 동안 계속되다가 시구간의 끝에서 종료된다. 이러한 엄격한 시구간의 개념의 적용이 바로 미완료 역설의 근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정된 (23)의 정의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23)에 따르면 진행형 문장은 특정한 시구간에서 그 사건이 진행 중이고 미래의 가능세계에서 그 사건이 끝날 수가 있으면 참이 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5) a. Mary was flying to Hawaii.
 b. Mary was flying to Miami.
 c. Mary was flying to Quebec.
 d. Mary was flying to Fiji.

어느 시점에서 Mary가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 간다면 (25a)는 참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Mary가 탄 비행기가 공중 납치되어 Miami로 갈 수도 있고 Quebec로 갈 수도 있고 Fiji섬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같은 시점에서 (25b), (25c), 그리고 (25d)도 가능한 현실적 결과이므로 (23)에 따르면 이들의 진리치도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이러한 문제는 (23)에 대한 본질적인 약점이 될 수 없다. (25b), (25c) 그리고 (25d)의 사건은 비행기가 공중납치 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사건이며 (25a)가 참인 시구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Kearns가 제안한 (23)의 가상세계 분석은 달성동사의 경우엔 적용하기 어렵다. Vendler(1967)의 분류에 따르면 달성동사는 순간적인 특정 시점에서 결과적 상태로 이행되는 사건으로서 달성동사 문장은 시제논리에

서 일정한 시구간이 아니라 한 시점에서 참·거짓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볼 때 (26)과 같은 달성동사 진행형은 (23)의 진리조건으로는 분석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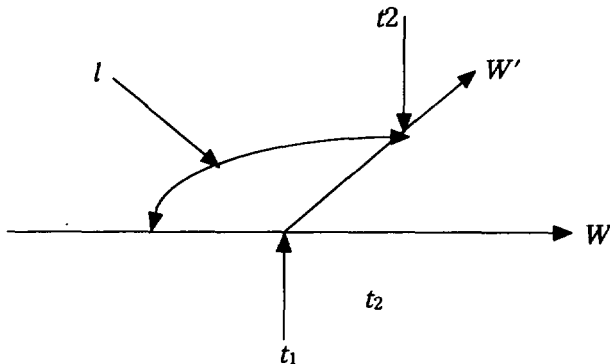
- (26) a. Flight 246 is now arriving at Gate 20.
- b. Jones is dying.
- c. I am deciding what to do about this.
- d. Mary is winning.

(23)에 따르면 (26b)는 (27)과 같이 분석될 수 있는데, 달성동사 die의 단순시제형이 시점적 의미(punctual reading)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 (27) "Jones be dying" is true at $\langle I, w \rangle$ iff for some interval I' such that I' is properly included in I , there is a possible world w' such that w and w' are identical up to and including I , and "Jones dies" is true at $\langle I', w' \rangle$

(27)의 분석에서 단순시제문장 Jones dies가 참이 되는 I' 은 시구간이 아니라 순간의 시점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시점은 Jones가 치명적으로 병이 난 시구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Jones dies가 참이 되는 시점 이후까지 계속되는 시구간의 개념으로는 Jones be dying의 진리조건을 기술할 수가 없다. 달성동사 die, win the race, reach the summit 등의 의미속성이 종결점에 이르는 과정이 누적적이지 않고 순간에 이행되기 때문에 (23)의 진리조건으로는 완수동사 진행형은 분석할 수 있겠지만 달성동사 진행형은 분석하기 어렵다. (27)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28)과 같다.

(28)



(28)에서 t_1 을 Jones is dying이 참인 시점으로, I를 치명적인 투병기간으로, t_2 를 Jones가 죽은 시점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7)의 분석에 의하면 t_1 을 포함하는 시구간 I는 Jones dies가 참인 구간이 되는데, 달성동사 die의 특성으로 보아 Jones dies는 한 시점, 즉 (28)의 경우 t_2 에서, 참이 될 수 있으며 시구간에서는 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Kearns가 제안한 가상세계분석으로 달성동사 진행형을 형식의미론의 틀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인 것 같다³.

3. 진행형의 진리조건적 분석

이상을 정리하면 진행형의 의미분석은 필요에 따라 동사들의 범주를 하위 분류하여 이들을 각각 다른 방안으로 분석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능한 한 단순시제 동사의 의미와 연관지어 기술해야 하며, 이는 미완료 역설 등의 의미현상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종결상 동사 진행형의 진리조건을 먼저 (29)와 같이 제안해 본다.

(29) 종결상 동사 진행형의 진리조건 (첫 번째 제안)

[PROG ϕ] is true at I iff WH ϕ (= will - have - been - done ϕ) is highly expected to be true at t such that $t \subset I$, where the predicate of ϕ is "build, win, paint, draw a circle" etc.

아래 예문 (30a)를 (29)에 적용시키면 (31)과 같다. 그러나 (31)과 같은 분석에는 문제가 있다. 즉 (31)에 따르면 (30a)는 (30b)와 같은 의미가 되는데, (30b)는 Jones가 집짓기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참이 될 수 있고, Jones가 집짓기를 중단한 상태에서도 참이 될 수 있다.

3. 진행형의 의미분석에 있어서 Kearns(1991)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완수동사에 있어서는 Dowty(1977, 1979)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그의 분석을 보완하는 정도이고 달성동사에 대해서는 진행형의 술어를 단순시제의 술어와는 별도로 사건의 진행과정을 나타내는(지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Kearns는 가상세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완수동사 진행형은 진리조건으로 분석하고, 달성동사 진행형은 동사의 이중적 자격(double membership)에서 비롯된 과정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진행형의 winning을 단순시제 동사 win과는 다른 별개의 과정술어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분석은 언어적 직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30) a. Jones is building a house.
- b. It is highly expected that Jones will have built a house.
- (31) [Jones is building a house] is true at I iff “Jones will have built a house.” is highly expected to be true at t such that $t \subset I$.

따라서 (29)를 다음 (32)와 같이 수정해 보자. 예문 (30a)를 (32)에 적용시키면 (33)과 같다. 그러나 (33)은 완수동사에서는 별문제 없이 적용될 것 같으나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die와 같은 달성동사에서는 위 (27)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 (32) 종결상 동사 진행형의 진리조건(수정안)
 [PROG Φ] is true at I iff Φ is true at t and WH Φ (= will-have-been-done Φ) is highly expected to be true at t such that $t \subset I$, where the predicate of Φ is “build a house, paint a picture, die” etc.
- (33) [Jones is building a house] is true at I iff “Jones builds a house” is true at t and “Jones will have built a house” is highly expected to be true at t such that $t \subset I$.
- (34) [Jones is dying] is true at I iff “Jones dies.” is true at t and “Jones will have died.” is highly expected to be true at t such that $t \subset I$.

즉 (34)에 의하면 John dies and he will have died라는 문장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앞서의 논의에서 우리는 달성동사의 진행형은 단순시제문이나 무시제 문장으로 기술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이들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성동사 진행형의 진리조건을 ‘involved’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다음 (35)와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 (35) 달성동사 진행형의 진리조건
 [PROG P(A)] is true at I iff A is involved in the event of P at t and WH[P(A)](= A will have P-ed) is highly expected to be true at t such that $t \subset I$, where A is the subject and P is the predicate of the sentence, and P is “win, die, land” etc.

이제 (32)의 진리조건은 (36)과 같이 완수동사 진행형을 위한 진리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36) 완수동사 진행형의 진리조건

[PROG ϕ] is true at I iff ϕ is true at t and WH ϕ (= will-have-been-done ϕ) is highly expected to be true at t such that $t \subset I$, where the predicate of ϕ is "build a house, draw a circle" etc.

지금까지 미완료 역설이 발생하는 종결상 동사의 진행형을 중심으로 진리조건적 분석방법에 입각하여 (35)와 (36)의 진리조건으로 진행형의 의미를 기술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4.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영어의 진행형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미완료 역설이 초래되는 종결상 동사 진행형의 의미분석에 대해 논의하였다. Bennett(1981)는 종결상의 사건은 닫힌 시구간에서 일어나고 비종결상의 사건은 열린 시구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여 종결상 동사 진행형의 진리조건을 제안하였으나 술어의 외연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가능세계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Dowty(1977, 1979)의 비활성세계의 개념은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진행형 문장에 의해 지시되는 사건이 다른 사건에 의해 중단될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중단된 사건이 비활성 세계에서 계속 허용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 Kearns(1991)가 완수동사 진행형에 적용한 가상세계의 개념은 Dowty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Kearns의 주장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달성동사 진행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진행형의 의미분석은 가능한 한 단순시제 동사의 의미와 연관지어 분석하고, 이는 미완료 역설 등의 의미현상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highly expected to be true'라는 개념과 involved in the event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완수동사와 달성동사의 진행형의 진리조건을 제안해 보았다. 미세한 문제들을 더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둘은 한 가지로 통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의 제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highly expected to be true와 involved in the event라는 개념이 형식의미론의 틀 안에서 적절히 기술되어야 할 것인데 전자는 양상논리(modal logic) 등에서 후자는 단순한 술어에 따른 집합의 개념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 이영현. 1995. 기초 형식의미론. 서울: 한신 문화사.
- 이익환. 1994. "형식 의미론,"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 서울: 한신 문화사.
- 최성훈. 1996. "영어 진행형의 의미분석,"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ennett, M. 1977. "A guide to the logic of tense and aspect in English," *Loquique et Analyse* 20, 491-517.
- Bennett, M. 1981. "Of tense and aspect: one analysis," *Syntax and Semantics* 14, 13-29.
- Bennett, M. and B. Partee. 1978. "Towards the logic of tense and aspect in English," *IULC* 5, 529-87.
- Declerck, R. 1979. "On the progressive and imperfective paradox," *Linguistics and Philosophy* 3, 267-72.
- Dowty, D. R. 1977. "Toward a semantic analysis of verb aspect and the English imperfective paradox,"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45-78.
- Dowty, 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 Higginbotham, J. 1990. "The Imperfective Paradox," ms. MIT.
- Kearns, K. S. 1991. *The semantics of the English progress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Kripke, S. A. 1980. *Naming and Necess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sons, T. 1989. "The progressive in English: events, states and process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213-41.
- Parsons, T.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Cambridge, MASS: MIT Press.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Vlach, F. 1981. "The semantics of the progressive," *Syntax and Semantics* 14, 271-92.

최 성 훈

502-742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199-1번지

송원전문대학

Tel: (062) 360-5825